

# 성경 예언 해설집 <4회>

## 노아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으로 BC 3100년 경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 세 아들을 향한 예언

본문(창 9:25-27)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해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사람의 자손들의 미래사를 말한 것이다. 홍수 직후 노아의 가족은 유프라테스강 중상류에 거주하였다. 세 아들의 자손들이 분포되어 거주한 지명이 기록된 기사(창 10장)를 참고하면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셈은 동쪽으로 옮겨 갔으니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남쪽 더운 지방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서북 유럽 방면으로 진출하여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태고 시대는 함의 자손이 번영하고 함의 자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지 않았다. 노아의 예언은 근

세에 들어와 야벳의 자손인 백인들이 물질 문명으로 부강하게 되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응하게 되었다. 백인들은 황인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흑인을 동물로 취급하여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을 짐승처럼 부리고 시장에서 매매하였으니 “함(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아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다.

셈에 관하여 예언한 부분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를 배출할 선민으로 믿고 있으니, 즉 유대교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에 텐동산으로 신봉하고 있고, 기독교는 유다의 자손 예수가 하나님의 장막 천국을 하늘에 건설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주장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이 틀린 점을 알아보자. 먼저 끝날에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는 유대교의 주장(사 2장)은 역사 해석임을 세계 역사와 현 정세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의 전성기는 3천 년 전 솔로몬 시대 반짝 빛을 발한 후 빛을 잃었으니 지금은 세계인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교의 천국 장막설도 과학적인 사고

에 의하면 우스꽝스러운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승리자로 오시는 때가 찬송하는 시대요, 야벳이 창대하여 세계를 웅비하며 지배하였으나 “셈의 장막에 돌아온다”고 한 것은 물질문명으로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종교 문명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셈의 장막에서 성취되고 있으니 한반도가 금세기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세주가 한국에 출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아의 예언은 지구상에서 되어질 것을 말하였으니 천상의 장막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해석은 비성경적이지 거짓말이 된다.

##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셈의 10대손으로 BC 2000년경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 향년 175세로 헤브론에서 사망하였다.

###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

본문(창 12:1-3, 17:1-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

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12-3)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

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자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14)

### 해설

성경 기사 표현이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異像)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어 장래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였으니 족장(族長) 시대(아브라함 시대부터 12지파 시대까지) 기사는 구전(口傳)으로 전해 오다가 총리 요셉이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문서로 조상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리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심과 할례의 예법을 정하노라.” 하였다.

노아 시대부터 선민은 장자 계통으로 혈통이 계승되었으니 셈의 족보(참조 창 11장)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

나님이나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초민족적 차원에서 인류를 품에 안은 것이다.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하여 영생의 복을 내릴 것을 말씀한 것이니 야벳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들이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신앙하고 있으나 본문은 분명하게 땅에서 되어질 것을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시행한 할례(割禮)는 선민의 구원의 징표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들갈로 살점을 베는 것이니 이방인과 구별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여 혈통을 지키고 낱마다 몸의 흔적을 보게 되므로 선민사상이 몸에 배어 있게 된다. 단자손도 한반도에 들어와 초기까지 할례를 시행하다가 한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법이 사라졌다.

※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는 기록을 가지고 유대교가 유대 왕국과 예루살렘 땅이 영원한 복지라고 주장하나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한 관계로 가나안에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예고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신 31장, 32장 8절 참조)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9>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29>

### 죄(罪)인들, 마귀신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 - 3

하나님(미륵부처님)은 그 날에 있을 죄인들을 아래와 같이 심판한다고 하셨다.

먼저 성경상에 기록된 것을 보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물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땃갈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

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실려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에스겔 15장 [개역개정] 1-8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me, saying,

Son of man, what is the vine tree more than any tree, or than a branch which is among the trees of the forest?

Shall wood be taken thereof to do any work? or will men take a pin of it to hang any vessel thereon?

Behold, it is cast into the fire for fuel; the fire devoureth both the ends of it,

and the midst of it is burned, is it meet for any work?

Behold, when it was whole, it was meet for no work: how much less shall it be meet yet for any work, when the fire hath devoured it, and it is burned?

耶和 的 到 我 , 人 子 阿, 葡 萄 比 有 什 强. 葡 萄 枝 比 枝 有 什 好. 其 上 可 以 取 木 料 作 什 工 用, 可 以 取 作 子 什 器 皿. 看, 已 抛 在 火 中 作 柴, 火 了, 中 也 被 了, 有 益 于 工 用. 完 全 的 候 且 不 合 乎 什 工 用, 何 被 火, 能 合 乎 什 工 用.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땃갈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와 같이니라 하시니라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GOD: As the vine tree among the trees of the forest, which I have given to the fire for fuel, so will I give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I will set my face against them; they shall go out from one fire, and another fire shall devour them; and ye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set my face against them. And I will make the land desolate, because they have committed a trespass, saith the Lord GOD. Ezekiel 15 [KJV] 1-8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땃갈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主耶和 的.

위 성경구절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를 말하며 예루살렘 주민은 종교와 상관없는 전세계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에 물든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은 아랫목 불구덩이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불구덩이에 넣어 넣겠다고 하신 점이다.\*

明鐘

교보 및 대형서점에서 2022년 1월 판매 예정!

신간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서양 후 사마에 국인들의 역사

60년대 국내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와 홍인비 관사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시작하여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정하며 아픔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키워낸 한 명의道士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승리신문 편집부 역음 / 656쪽 양장본 / 정가 45,600원

## 해방 후 마지막 道人들의 역사!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인내하고 견뎌낸 구도역정!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만 수많은 도인(道人)들이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을 보여주었던 한민족의 정통 道人들. 반면 일제강점기 전부터 급속히 한반도로 들어왔던 기독교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젖어들었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의 도맥(道脈)은 끊어지고 道人들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잊히게 되었다.

60년대 국내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와 홍인비 관사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시작하여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정하며 아픔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키워낸 한 명의道士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이 책을 읽고  
당신도 완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